

편집디자인의 미학적 근거 밝힌 「그리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잡지편집자 金斗植씨

‘읽기 쉽고 아름답게.’

마치 구호와도 같은, 누구나 동의하는 편집디자인의 기본원리다. 하지만, 막상 편집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읽기 쉽고 아름다워지는가에 이르면 말들이 많아진다. 이때부터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구각색의 경험과 감각들이 대개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읽기 쉽다거나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읽기 쉽고 아름답다는 실제적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도 여러가지로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지침’같은 것을 붙잡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 점에서 제가 요즘 번역하고 있는, 편집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그리드시스템’을 제시하는 「그리드시스템이란 무엇인가」는, 경험과 감각을 뛰어넘는 편집디자인의 미학적 근거를 밝힌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프전문지인 「월간 파골프」 편집부장 金斗植씨(33)가 만나 제쳐두고 요즘 번역의 마무리작업에 열을 쏟고 있는 「그리드시스템이란 무엇인가」의 원제는 「Grid System in Graphic Design」. 조셉 윌러와 브룩스만 공저로 1982년 미국과 스위스에서 동시출판된 책이다.

10년 남짓 출판 및 잡지 편집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김두식씨가 그동안 편집디자인에 관해 품어 온 불만과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국내의 문헌을 섭렵하던 중 지난해 초 우연히 발견해, 혼자 보기엔 아깝다 싶어 번역에 착수하게 됐다고.

“활자와 사진, 그리고 인테리어나 전시장의 배열에 이르기까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전영역에서 그 시각적 매체들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시키는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 책은 일관된 탐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탐구의 결론이 바로 그리드시스템이죠. 저자들에 의하면, 그리드시스템이야말로 의사전달과 심미적 감흥을 아울러 만족시키는 기본원리입니다.”

우리말로는 ‘格子’쯤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리드’란, 마치 그리스시대의 황금분할과 같이 어떤 전체의 심미적 통일성을 가능케 하는 ‘유니트’의 개념을 가진다. 즉, 이 책은 그리드라는 유니트의 배열과 조합에 따른 원리와 실제적 운용의 풍부한 사례들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읽기 쉽고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극명하게 밝혀 준다. 김두식씨의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김두식씨는 이 책의 번역이 ‘관행의 답습’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편집디자인계에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아가, 편집디자인의 경험과 감각이 부족한 초보자에게 좋은 참고가 되는 길잡이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다.

“올봄 안에 출간할 예정으로, 요즘은 본문번역을 퇴고하면서 용어해설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면 안팎의 소책자이지만, 그리드시스템에 관련된 여러가지 낯선 용어가 많아 이를 자세히 해설한 용어집을 덧붙일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책의 번역을 계기로, 우리 글자꼴에 맞게 개발된 우리만의 그리드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겠습니다.”

— 강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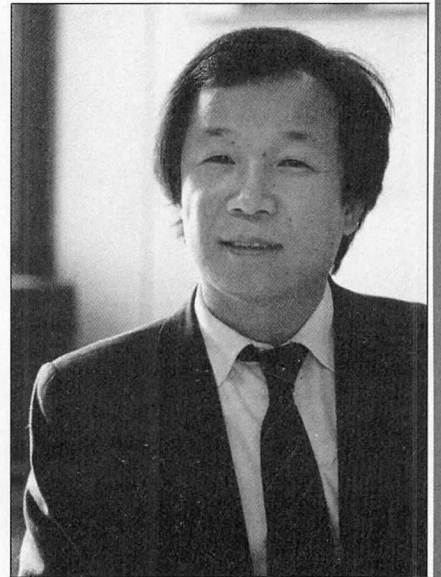
베트남 전쟁의 의미 되새겨

전작소설 「황색인」 2부

李相文

소설가

2부의 무대는 歸國船과 귀국 후의 한국이다. 주인공이 배를 타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귀국한 뒤에는 국내의 격변하는 정치·사회현실과 부딪쳐야 한다. 계획한 1,600매 가운데 3분의 2쯤 진척되었다.



베트남이란 나라를 두고 우리의 유행가는 「먼 남쪽 섬의 나라」라고 노래했었다. 또 그 노래가 한동안 크게 유행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베트남은 섬이 아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대륙을 머리에 이고 있는 변방국가인 것이다. 어떻게 해서 베트남을 섬으로 알게 되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노래로까지 부르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가 얼마만큼 베트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 수는 있다.

그곳에 30만 명의 젊은이를 보내서 3천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그보다 몇 배의 부상자와 실종자를 냈으면서도, 그나마 이제는 우리에게 잊혀진 땅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가끔 잊혀진 땅 베트남을 ‘월남’이란 이름으로 상기시키곤 한다. 그때는 으레 학생 시위가 격렬하거나 재야권의 저항이 심한 경우인데, 텔레비전을 동원해서 ‘월남이 폐망한 원인’을 아전인수격으로 분석하면서 겁을 주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트남은 망하지 않았다. 단지 쿠엔 반 티우 정권인 ‘월남’이 망한 것이다. 우리 식의 표현을 그대로 쓴다 해도 ‘적화통일’이 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내세운 쿠엔 반 티우 정권(월남)과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주장하고 나온 베트남 독립연맹(월맹) 및 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과의 싸움이며, 전쟁의 시발 또한 프랑스에 대한 독립전쟁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다 알 것이다. 따라서 ‘월남’의 폐망은 독립전쟁의 종결과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화통일’의 의미는 아주 명료해진다.

장편 「황색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씌어졌다.

좀더 덧붙이자면, 베트남 전쟁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투영되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따져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천6백매 분량의 「황색인」은 하고자 한 이야기를 다 담지 못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2부로 나머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채 완성되지 않은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담고 있는 김치의 국물부터 마시는 것 같아서 여간 쑥스러워지지 않는다. 또 작가 개인적으로는 은밀하게 해야 할 작업장을 공개하는 셈이어서 작업의 긴장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기서 용기를 내게 된 것은, 계획한 1,600매 가운데 3분의 2쯤 진척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을 잘 마무리해낼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2부의 무대는 귀국선이 천해 뜰 것이고 그 나머지가 한국이 된다. 주인공 박노하가 배를 타고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귀국한 뒤에는 아버지의 과거와 '71년 가을 이후의 격변하는 정치·사회 현실과 부딪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금단시되어 왔던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한국군의 실종자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밝혀 나갈 것이다. 한국군은 단 한명의 실종자도 없고 미국만 실종자가 있어서 송환되고 있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욕심대로라면 가을쯤 일을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뜻대로 되어 주었으면 한다.